

‘2023 한국방문의 해’, 방한 관광시장 다변화 총력전

- 수교 기념 국가 인도(8. 25.~27.), 독일(8. 25.~27.), 인도네시아(8. 30.~9. 10.)
에서 K-관광마케팅 펼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공사)와 함께 ‘2023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수교 기념 국가인 인도, 독일, 인도네시아에서 방한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8. 25.~27. 수교 50주년 인도에서 K-컬처 활용 ‘2023 한국관광 페스티벌’ 개최

먼저 문체부는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인도에서 8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중상류층 밀집 거주지역인 뉴델리와 구르가온에서 ‘2023 한국관광 페스티벌(Korea Culture& Tourism Festival 2023)’을 열고 현지 한류 팬 5만여 명을 공략했다.

인도는 ’23년 기준 인구 약 14억 명을 보유한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24년에 해외관광지출(420억 달러, 약 56조 원)이 ’19년 대비 1.8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성장시장이다. 특히 ’22년 기준 한국 문화 콘텐츠 인기도와 소비 비중 등 모든 핵심지표 순위*에서 상위 5위 안에 등재되는 등 한류 인기도가 높아 이를 기반으로 한 방한 관광시장 성장 가능성이 큰 곳이다.

* 2023 해외 한류 실태조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이에 이번 행사에서는 인도 최대 여행사인 토마스쿡(Thomas Cook) 등과 함께 K-컬처를 활용한 방한 관광상품을 집중 마케팅했다. 특히 롯데와 이니스프리 등 국내 브랜드가 함께한 K-푸드, K-뷰티 연계 프로그램 등이 인기를 끌었으며, 인도 채식 인구를 겨냥한 봉은사 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우관스님의 사찰음식 시연회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8. 25.~27. 수교 140주년 기념 독일에서 MZ 맞춤형 ‘2023 한국 문화관광대전’ 개최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독일에서는 8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프랑크푸르트 최대 문화예술축제 ‘2023 박물관강변축제(Museumsuferfest 2023)’와 연계해 ‘2023 한국 문화관광대전(YouR Korea Festival)’을 개최하고, 약 5만 명 소비자를 대상으로 MZ세대 맞춤형 마케팅을 펼쳤다.

독일은 유럽 1위의 경제 대국이자, 작년 세계 아웃바운드 관광 지출 규모 3위의 중요 시장이다. 코로나 이전 독일의 해외여행객 최대 송출 규모는 약 1억 8백만 명('18년 기준)에 달해, 향후 유럽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집중이 필요한 전략 시장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독일 예비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적성과 흥미를 찾기 위해 ‘갭이어(Gap Year)’ 기간을 갖는 현지 문화를 겨냥해 국제학생증(ISIC) 전담여행사 등과 함께 현지 선호를 반영한 방한 관광상품을 집중 마케팅했다. ▲K-클라이밍·자전거·트레킹 여행 등 야외 스포츠 활동과 ▲렌터카 이용 자유여행, ▲템플스테이, ▲K-팝, 드라마 등 연계 K-컬처 체험 상품이 현지 MZ세대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8. 31.~9. 10. 수교 50주년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방한관광상품 판촉

8. 29. 인천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환대

아울러 문체부는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8월 31일(목)부터 9월 10일(일)까지 ‘2023 한국 문화관광대축제(Korea Culture& Travels Festival 2023)’를 열고 소비자 약 2만여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방한관광상품 판촉에 나선다.

인도네시아는 '23년 세계 4위(약 2억 8천만 명)의 인구 대국이자 '19년 방한 규모 9위에 해당하는 동남아 핵심 성장시장이다. 특히 '22년 한국 문화콘텐츠 브랜드파워 지수가 전 세계 1위에 달했으며, 해외 최초 한류

종합상설홍보관 ‘코리아(KOREA) 360’이 설치되었을 정도로 한류 관심도가 높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러한 한류 관심도를 실질적인 방한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국내외 7개 항공사, 현지 국책은행 만디리 은행(Mandiri Bank) 등과 함께 대대적인 할인 혜택을 마련, 인도네시아의 방한관광상품 판매 실적 상위 10대 모객사를 통해 대규모 방한관광상품 판촉전을 진행한다. 또한 이번 행사에 앞서 8월 29일(화) 인천국제공항에서는 2달여 에 걸쳐 총 1천8백여 명 규모로 입국하는 알리안츠 인도네시아(Allianz Indonesia) 방한 인센티브 단체를 대상으로 환대 행사를 열어 양국 교류 행사의 서막을 열 예정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방한관광시장 다변화는 안정적인 관광 수요를 확보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라며 “‘2023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동남아와 구미주 등 중·장거리 시장을 대상으로 공세적인 마케팅을 진행해 방한관광시장의 질적 도약을 도모 하겠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행사 사진

담당 부서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	책임자	과장	이혜림 (044-203-2831)
		담당자	사무관	안승연 (044-203-2839)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지적브리핑

